

광주지역 고교생들 “선생님요? 별로예요”

‘교사 만족도’ 3.84... 전국 평균 밑돌아

“선생님 만족도요? 별로예요. 특히 수업보다 생활지도에 불만이 많아요.”

광주지역 고등학교생들의 교사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광주지역 고등학교생들의 교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으로, 전국 평균 3.90보다 못미쳤다.

전남지역 고교생들(4.18)보다는 무려 0.34점이 낮았다. 특히, ‘수업’보다는 ‘생활지도’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다.

교사의 교과내용 분석과 교수 학습전략 수립 등 수업준비 항목에서 4.15점, 교사-학생 상호작용 및 수업 진행 4.05점, 평가 내용·방법·활용 등 평가 항목에서 4.07점을 기록, 수업 관련 만족도는 모두 4점을 넘겼다.

하지만 가정연계 지도 및 생활습관 지도 등 개인생활지도 3.52

점, 학교생활적응 및 민주시민성 지도 등 사회생활지도는 3.30점으로 매우 낮았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민주시민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사회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극히 낮아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 고교생들은 수업준비 4.31점, 수업실행 4.15점, 평가 및 활용 4.53점, 개인생활지도 및 사회생활지도 각각 4.06점 등 모두 4점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에는 광주지역 전체 학생의 54.91%, 학부모 26.35%, 동료교원 79.50%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만족도는 4.22점, 학부모 4.44점, 동료교원 평가 4.83점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 초등학교 4.39점, 중학생 4.20점, 고등학생 3.84점 등 학력이 높아갈수록 만족도는 떨어졌다.

연광기자 jwpark@kwangju.co.kr



반갑다 친구야 37일간의 겨울방학을 마치고 28일 개학한 광주시 서구 치평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다시 만난 친구들과 팔씨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내광기자 mjna@kwangju.co.kr

학교자치 조례 반대여론 확산

광주 교육단체 10곳 “즉각 폐기” 시의회에 요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9일 심의하는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학부모단체의 조례제정 중단 촉구에 이어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 10곳으로 구성된 ‘학교자치조례(안)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폐기’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조례 폐기를 위한 시민 발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교사회·직원회 등은 학교자치보다는 집단의 권의 추구하고 교직원들 갈등이 예견되고, 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해 학교 현장 혼란이 빠뜨릴 것”이라며 “기존 조례

와 충돌되고 상위법 근거가 미약한 학교자치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에는 광주시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시교장단체협의회,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이 참여했다.

반면,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찬성 측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자치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광주지역 570여개 학교에 실질적인 자치가 도입되고, 인사·예산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는 주민 발의의 취지를 살려 학교자치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제214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표결 없이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이 안은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연광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자치조례 =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진보계열의 교육단체가 앞장서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로 지난해 8월 광주시민 1만7981명의 청구로 발의됐다.

학교 내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고,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의견도 들도록 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4분 해질 17시 58분 달뜨기 20시 09분 달지기 08시 19분

안개주의 구름 낀 가운데 낮부터 추위 풀리겠다. 광주 0/9C, 목포 0/8C, 여수 0/9C, 나주 -2/9C, 완도 1/10C, 구례 1/10C, 강진 -3/10C, 예남 -2/10C, 장흥 -3/10C, 순천 -3/9C, 영광 -2/8C, 진도 1/11C, 전주 -1/8C, 군산 -1/7C, 남원 -3/8C, 옥산 6/10C

바다	종형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보통	낮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보통	낮음	보통

바다	종형	파고	일출	일몰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포 03:15	08:36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여수 10:36	04:11

날씨	30(수)	31(목)	2/1(금)	2(토)	3(일)	4(월)
최저/최고	2/10	1/12	6/10	0/3	-2/5	1/6

“의약품 리베이트로 약값 인상분 돌려달라”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을 환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보다 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구매하게 만들고 이

는 필연적으로 고가와·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가 의약품 가격을 전부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도 있는 만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1년 정부와 수사기관에 적발된 리베이트 액수는 총 1조1418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환상제주 여행사 파트너 모집.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왕복 2박3일 (월반호틀) 1인 ₩229,000~. 왕복 2박3일 (블루나레) 1인 ₩169,000~. 왕복 2박3일 (블루나레) 1인 ₩155,000~. 제주도골프투어-항공/선박골프패키지 1박2일. 환상제주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우여행사 374-1881. 메이트어 070-7093-0555. 한빛투어 956-0045. 침담/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384-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고고투어 603-4416.